

조선시대 밀양지역 성황신앙의 위상과 종교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

삼한벽상공신 손금훈 장군 성황을 중심으로

최진아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한국학 전공

julia73@hanyang.ac.kr

I. 머리말

II. 지역수호신으로서 손금훈 성황의 추존배경과 그 위상

III. 손금훈 성황신앙이 밀양지역 종교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

IV. 맺음말

이 논문은 202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0-C05).

I. 머리말

성황(城隍)에서 성은 성벽을, 황은 본래 성을 보호하는 물 없는 해자를 의미한다. 옛날 사람들이 성을 쌓는 것은 성 안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다.¹ 성황은 성벽과 공호로 둘러싸인 도시라는 의미이며, 성황 신앙이란 성곽 도시의 수호신에 대한 도시인의 신앙체계라 할 수 있겠다.² 중국의 민간도교(民間道敎)에서 성황은 지역의 수호신, 엄밀히 따지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수호신³으로 신앙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성황신은 영어로 City-State⁴ 혹은 City-God⁵이라 번역되고 있다.

중국에서 유입된 성황은⁶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한다. 이때의 성황은 수리와 관련된⁷ 단순한 방어시설에 대한 명칭에 불과하였다.⁸ 이후 『고려사』에 고려 성종 15년(996), 성종의 아버지 육과 관련된 사수현의 성황당⁹이

-
- 1 마서전(저), 윤친근(역), 『중국의 삼백신』(민속원, 2013), 690쪽.
 - 2 徐永大, 「韓國과 中國의 城隍神仰 比較」 『中國史研究』 12, 中國史學會(2001), 174쪽.
 - 3 G. 프루너(저), 조홍윤(역), 『중국의 신령』(정음사, 1984), 65쪽.
 - 4 那波利貞, 「支那に於ける都市の守護神に就きて」(上), 『支那學』, 第7卷 第3號(1934), p. 29.
 - 5 David Johnson, "The City-God Cult of T'ang and Sung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5-2, Harvard-Yenching Institute, 1985, pp. 402~417.
 - 6 문헌자료에 성황은 그 성소(聖所)라 할 수 있는 성황당·성황신사라는 명칭도 혼용되어 나타난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황이라는 개념은 『삼국사기』에 등장하며, 이후 성황당과 성황신사라는 명칭은 『고려사』에 나타난다. 이 두 용어가 각각 시간차를 두고 문헌자료에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큰 차이를 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성황신앙은 도시의 수호신인 것에(David Johnson, op cit, 1985, pp. 402~417) 반해, 국내 처음 성황 유입 당시 그 직능은 전쟁과 관련된 신(김갑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1991))으로서 성황의 여러 다양한 직능 중 일면만이 수용되었고 또한 그 전승형태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7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 8 김갑동, 위의 논문, 4쪽.
 - 9 『고려사』 권90. 「종실열전」; 『고려사절요』 권2, 「성종문의대왕」.

등장한다. 고려 문종 9년(1054) 신성진(新城鎭)에 성황신사(城隍神祠)를 설치한 이후 숭위(崇威)라는 봉호(封號)를 주었다¹⁰는 기록을 통해 성황은 단순한 방어시설에서 지역의 수호신으로 그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황신앙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지역민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녀왔다.¹¹ 고려시대 성황은 지역 토호세력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특징을 지닌다.¹²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성황제로 거행되고 유지되었다.¹³ 당시 성황제는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

기존의 성황신앙에 대한 연구는 지역문화와의 연계성 속에서 고려시대 지역토호세력과의 연계성, 조선시대 읍치제의와의 관련성, 지역공동체의 동신(洞神) 혹은 민속종교의 신으로 수용된 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¹⁴ 성황으로 모셔지는 주신의 성격은 대개 인물신의 비중이

10 『고려사』 권63, 예지 5.

11 이기태, 「성황사와 지역사회 이념의 통합: 조선 중·후기 순창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8집(1999), 78~80쪽.

12 김갑동, 위의 논문, 4쪽.

13 최중석, 「여말선초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2009), 207~251쪽.

14 김갑동, 위의 논문; 정승모, 「城隍祠의 民間化와 鄉村社會의 變動」, 『泰東古典研究』 7(1991); 박호원,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 2집(1995); 한국종교사연구회, 『성황당과 성황제: 순창 성황대신사적기 연구』(민속원, 1998); 徐永大, 『中國城隍關聯論文選』(민속원, 1999); 이기태, 위의 논문; 徐永大, 앞의 논문; 金澈雄, 「조선 시대의 城隍祭」, 『史學志』 35(2002); 유영숙,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질서변동과 城隍祠」, 『江原文化史研究』 7(2002); 金澈雄, 『韓國中世 國家祭祀의 體制와 雜祀』(韓國研究院, 2003); 변동명, 「城隍神 金忍訓·孫兢訓과 梁山·密陽」, 『한국사학보』 22(2006); 최중석, 「조선 시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韓國史研究』 143(2008); 변동명, 『한국 전통시기의 산신·성황신과 지역사회』(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변동명, 「한국 전통 시기의 산악신앙·성황신앙과 지역사회: 역사상 인물의 산신·성황신 추앙을 중심으로」, 『호

높다. 인물 기원신은 지역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며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다. 전자의 사례 중, 국가에서 성황으로 추앙한 사례는 개국공신이거나 공을 세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손공훈은 고려개국공신인 삼한벽상공신중 한 명으로서, 940년(태조23) 신흥사를 중수하고 이곳에 세운 공신당 벽면에 그 모습이 그려진 인물이다.¹⁵ 손공훈은 고려시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광리군에 추봉되었다. 광리(廣理)는 밀양의 옛 이름¹⁶으로 밀양지역에서는 손공훈이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성황 중의 하나로 여겨져 온 것¹⁷과 달리, 손공훈과 관련된 연구는 신라 말 고려 초의 호족을 검토하면서 스치듯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손공훈이 지방 호족으로서 중앙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정사류에도 거의 기록을 남기지 못하다시피 하였다. 일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손공훈은 관심의 대상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손공훈은 양산의 김인훈과 함께 지역 성황신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¹⁸, 이 외에 청도지역 견훤 전승을 다룬 연구 성과 중 운문사의 삼국평정 과업 논의와 관련 내용에 언급된 바 있다.¹⁹

밀양의 손공훈 사례는 개국공신이 성황으로 추존된 사례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성을 지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⁰ 밀양지역에서

남학』 67집(2020).

15 『고려사절요』 권21 「충렬왕」.

16 『성호전집』 권66 「행장」.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경상도」 ‘밀양도호부’.

18 변동명, 위의 논문(2006), 9~58쪽.

19 천혜숙, 「청도지역의 견훤 전승과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 『실천민속학연구』 33집(2019), 87~96쪽, 101~113쪽.

20 고려시대 세운 공이 인정되어 지역에서 성황으로 추앙된 사례라는 점은 보편성을 지니나 해당 지역에서 민속종교로 수용된 사례가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점, 불교 사찰에서 진영을 봉안하고 정기적으로 의례가 행해져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신앙되고 있는 손궁훈과 관련된 문헌자료와 현존하는 유물 및 유적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추앙된 이후 조선시대에도 지역의 공인된 수호신으로 지속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²¹ 이를 위해 고문헌 자료와 현장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밀양의 수호신으로서 신앙되어 온 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손궁훈이 밀양 지역에서 지역수호신으로서 추존된 배경과 그 위상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손궁훈 성황신앙이 지역의 종교에 미친 영향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손궁훈 성황이 지역민 속종교에 영향을 미친 점과, 지역불교에 영향을 미쳐 사찰의 수호신장으로 추존된 점도 살펴보려 한다.

Ⅱ. 지역수호신으로서 손궁훈 성황의 추존배경과 그 위상

고려 초 태조를 도와 공을 세운 공신들 중 일부는 성황으로 추존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국가의 주도가 아니라 출신지나 공을 세운 지역의 필요에 의해 혹은 후손들에 의해 추존되어 그들의 신앙을 봉안한 성황사가 설립되

수 있다.

- 21 통시적인 연구는 고문헌자료와 근현대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공시적 연구로는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고문헌자료에 손궁훈 관련 내용은 대부분의 간략하게 언급되는 수준이며 또한 산발적이어서,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서두에 밝힌다. 공시적 연구로는 밀양의 추화산(推火山)에 소재하였던 현충사(顯忠祠)의 옛터와 손궁훈의 무덤, 그리고 손궁훈의 진영이 봉안된 청도 운문사와 손궁훈의 신상이 전시되고 있는 밀양시립박물관에 대한 현지조사(2020년 8월 4~5일)를 수행하였다. 또한 운문사의 서기 스님(2020년 8월 4일)과 경천신명회 경성남도 지부 김성수 교구장님과 지역 역사학자인 장현호와의 면담조사(2021년 12월 2일)를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손궁훈 관련 자료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세 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었다. 고려 개국공신인 손공훈 또한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밀양에서 손공훈이 성황으로 추존된 배경과 그 위상을 살펴본다.

1. 밀양지역 성황으로의 추존배경

손공훈은 밀양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토호세력인, 밀양 손씨의 중조(中祖)이다.²² 손공훈의 선조는 진한(辰韓) 육부(六部) 대인(大人)의 하나인 순(順)이다. 신라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때에 대수부(大樹部)를 점량부(漸梁部)로 변경하면서 이 지역에 손씨를 하사하였다. 『신라사』에 의하면, “흥덕왕(興德王) 즉위 당시 순은 효도로 그 이름을 떨쳐 모양부(牟梁部)에 집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후에 순은 월성군(月城君)에 봉해졌다. 순의 후손이며 손씨 가문의 중조인 손공훈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개국의 공로로 광리군에 추봉되었는데, ‘광리’는 ‘밀양’의 옛 이름으로 이에 시조가 난 곳(貫鄉)으로 삼았다²³고 한다.

손공훈은 조선시대 지리지에 비교적 비중 있는 성황으로 언급되고²⁴ 있다. 그러나 그의 출신 및 지방 세력가로 성장하기에 이르는 과정과 유력자로서의 정치적 역할이라든지 혹은 성황신으로 추앙되기에 이르는 배경과 경위 내지 그 함의(含意)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²⁵ 손공훈은 밀양지역의 부리(府吏)²⁶로서, 지역의 아전계급이었다가 태조를 도운 공으

22 『창사집』 「창사집세계도」.

23 『성호전집』 권66 「행장」; 『창사집』 권5 「행장」; 손영경, 『밀성손씨죽원파세보』 (대보사, 2001), 4~5쪽.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경상도」 ‘밀양도호부’.

25 변동명, 앞의 논문(2006), 12~13쪽.

2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경상도」 ‘밀양도호부’.

로 개국공신으로 추존되었다. 밀양손씨는 손공훈을 기점으로 해서 밀양지역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는 호족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밀양 손씨 가문에서 그를 중조(中祖)²⁷로 여긴다는 점과 조선시대 밀양 손씨의 묘지명 혹은 묘갈명(墓碣銘)에 시조인 순과 함께 가문의 계보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손공훈의 활약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여러 전투 중에서 청도지역의 견성전투에서 공을 세운 것과 관련된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견성전투 기록²⁸이나 밀양 손공훈의 활약을 들어 당시 청도지역까지 태조의 군대가 들어왔다는 간략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²⁹ 당시 태조가 보영화상의 술책에 때라 밀양의 이웃인 청도를 공격할 때 손공훈이 그 경계인 견성 함락에 참여하였던 것으로³⁰ 추정된다.

태조를 도운 공로 이전, 손공훈은 이미 6두품계 춘주 출신의 ‘리(吏)’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토착세력가인 촌주(村主)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시대 주(州)·군(郡)·현(縣)의 이직은 중앙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고 지방 토착인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리’는 지방토착인 가운데서 그 지역 사정에 능통한 인물, 즉 토주를 말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향리(鄕吏)가 호장층(戶長層), 기관층(記官層), 색리층(色吏層)의 3계층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생각할 때 신라시대에도 리직(吏職)의 계층에 있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고려와 조선의 호장층과 같이 실제 ‘리’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토주이고, 그 밑에는 기관층·색리층과 같이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적인 리직자(吏職者)들이었을³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7 『창사집』 「창사집세계도」.

28 『삼국유사』 권4, 의해 5 보양이목조.

29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서경문화사, 2010), 63쪽.

30 김갑동, 앞의 논문, 6쪽.

31 윤희면은 『삼국사기』 권40 직관직 외관조에 보면, 중앙에서 각 주·군·현에 파견되

손공훈은 리직자 중에서 상류층의 촌주로서 곡창지대였던 밀양지역의 특성상 해상세력에 반하는 내륙호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라하대 촌락에서는 촌주와 같은 부농층이 등장하였는데 손공훈은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 농민을 끌어들이고 농토를 집적하는 등 농업생산력에 근거하여 밀양을 대표하는 호족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² 즉 토지를 소유한 촌주에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소속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세력구도도 재편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손공훈은 밀양지역의 영향력 있는 호족으로 성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과 인적 기반을 토대로 태조를 도와 공을 세울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고려시대 손공훈과 유사하게 태조를 도와 공을 세운 이들이 성황으로 추존된 경우는 몇 사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손공훈과 같이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은 토착세력이 성황으로 추존된 사례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개국공신 손공훈으로 인해 밀양 손씨의 지역적 위세는 대단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밀양 손씨는 손공훈을 성황신으로 추존하고 또한 지역 수호신으로 위상을 높인 지지 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다.³³

조선시대 전국의 성황사는 전라도 곡성, 경상도 의성, 충청도 대흥³⁴,

는 총관·태수·현령·소수 등 지방관만 표시되어 있고 이직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직의 지방 세력들이 발탁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尹熙勉, 「新羅下代の 城主・將軍: 眞寶城主 洪術과 載巖城將軍 善弼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39집(1982), 54~64쪽).

32 변동명, 앞의 논문(2006), 25~28쪽.

33 이 점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조선시대 성황제는 국가의 주관 하에 享祀로 지내었다. 성황제를 향사(享祀)로 지내지 않기로 한 1894년 이후부터 밀양 손씨가 주관하여 지내고 있다(밀양문화원, 『국역 밀양누정록』(신지서원, 2008), 34~37쪽). 이를 통해 향사로 지냈었던 시기에도 밀양 손씨가 성황제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충청도 공주목

충청도 괴산³⁵, 경상도 현풍³⁶, 경상도 양산³⁷, 경상도 밀양³⁸, 전라도 전주³⁹, 경상도 고성⁴⁰, 전라도 순천⁴¹ 등이 있었다. 당시의 지방 성황사는 숫자가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중 손금훈을 비롯하여⁴² 곡성의 신승겸, 의성의 김홍술, 양산의 김인훈, 순천의 김충, 대흥의 소정방⁴³ 등은 백제 및 후백제 전투와 관련된 인물로, 이들은 모두 고려시대에 성황으로 추존되었다. 이 중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공을 세운 당나라의 장수인 소정방(592~667)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려 태조를 도와 후백제와의 전투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다. 신승겸(?~927)은 918년 왕건을 추대하여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었으며, 후백제와 공산 동수에서 싸우다 전사했다.⁴⁴ 의성의 김홍술(?~929)은 그 외모가 고려 태조와 비슷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는 신라 진보성의 장군이었으나 의성부 성주에 임명되었다가 후백제 견훤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후 전사한 장소인 의성에서 성황으로 추존되어 제사를 지냈었다.⁴⁵ 양산의 김인훈은 고려 태조를 도와 벼슬이 문화좌시중까지 올랐으며, 그 사후 성황신이 되었다.⁴⁶ 순천의 김충은 다른 성황 사례들과과는 다르게 견훤에 의해 인가별감(引駕別監)에 이르렀고, 그의 사후 성황신이 되었다.⁴⁷ 그런데 그가 태조 18년(935) 왕검에게 귀순한 견훤의 사위인

35 『국조인물고』 권45, 박세무조

36 『동국여지승람』 권27, 현풍현 사묘조

37 『동국여지승람』 권25, 의성현 사묘조

38 『동국여지승람』 권26, 밀양도호부 사묘조

39 『동국여지승람』 권33, 전주부 사묘조

40 『동국여지승람』 권32, 고성현 사묘조

4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전라도 순천도호부

4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경상도 밀양도호부.

4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충청도 공주목.

4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전라도 곡성현.

4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경상도 의성현.

46 『동국여지승람』 권25, 의성현 사묘조.

4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전라도 순천도호부.

박영규 휘하 장수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견훤의 아들 신검과의 불화로 귀순했던 박영규 휘하 장수로서 신검과의 전투에 참여하였던 이력으로 이후 성황신이 되었을 것이라는 설이다.⁴⁸ 성황사에 배향된 인물 중 고려시대에 추존된 이들을 살펴보면, 성황신은 그 고을의 방어를 위한 수호신적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그런데 당시 성황사 건립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지역의 성황당은 지방세력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자들이 각 지역의 토성으로 분정되고 그들의 사후에 후손들이 자신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 성황당을 건립한 것이라 하겠다. 밀양 손씨는 고려시대에는 중앙에 진출하여 크게 영달하지 못하고 지역에서만 세력을 유지한 토성(土姓)이다. 그들은 그 지역의 지배세력을 굳건히 하고자 성황사를 건립하고, 지역민들을 결집시켜 지역적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조상을 지역 수호 성황신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바랐던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⁰

밀양 손씨는 손공훈의 영웅적인 면모를 찾아 밝히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공훈의 업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청도의 견성전투에서 태조를 도왔다는 정도만 언급되어 있을 뿐 보다 그의 영웅담을 보여주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 손공훈은 개국공신이라는 직함에 비해 그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유사한 행적을 보였던 인물을 손공훈과 연계해서

48 김갑동, 앞의 논문, 5~6쪽.

49 고려시대에 성황사에 소속된 무격이 존재하였으며, 그들이 기도나 제를 지내고 또한 예언의식 등을 행하였다(『고려사절요』 권13 「명종광효대왕」2; 『고려사절요』 권40 「신종정효대왕」).

50 김갑동, 앞의 논문, 6쪽.

해석하는 연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밀양 손씨 가문에서 뿐 아니라 일부 연구자에 의해 공준과 손공훈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손씨세덕록』에 “일휘(一諱) 공준(兢俊)의 휘는 공훈이고 밀양인이며 고려 태조 19년(936)에 친히 군병을 통솔할 때 대광으로 영기병 2만을 지휘하여 김석희 왕식렴을 전군으로 하고 황산에서 신검군을 대파하고 신검을 잡아 돌아오니 명성이 당대 으뜸이었다.”⁵¹는 내용이 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일리산 전투의 포진 부분에⁵² ‘대광 순식과 대사 공준, 왕렴’에서 공준을 공훈으로 보고 있다. 「광리군사적」의 포진부분에 ‘손공훈, 왕식렴, 김석희 운운’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밀양 손씨 문중에서는 일리산 전투의 포진에 등장한 공준을 손공훈 장군과 동일인물로 보는 것이다.⁵³ 이 공준에 대해서는 여러 이설이 존재한다. 공준은 삼국통일을 위한 전체 전장의 판세까지도 결정지은 운주전투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다. 운주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한 이후 견훤은 이 전투를 계기로 충남지역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고려 태조는 이를 발판으로 고려 통일사에 큰 획을 그었다.⁵⁴

운주(運州)는 고려 통일전쟁기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사료가 별반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실상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운주의 고려 통일전쟁기 이전 모습은 현 홍성군 관내에 있었던 군현의 이력을 통해 해풍향(혹은 해풍현)이 충청의 홍성지역 읍내에 해당함을 파악할 수 있다. 공준은 홍성지역의 성주로, 태조를 도와 후백제를 물리쳤다는 설이 있다.⁵⁵ 그런데 손공훈을 홍성 성주의 공준으로 보기에 다소 논란이

51 전국손씨화수회, 『손씨세덕록』 상권(기종족보사, 1993), 31~32쪽(천혜숙, 앞의 논문, 93~94쪽에서 재인용).

52 『삼국사기』 열전, 『고려사』 권2, 세가 2 태조 2.

53 천혜숙, 앞의 논문, 94쪽.

54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군사』 96(2015), 191~206쪽.

존재한다. 성주 공준은 태조 10년(927), 태조가 운주로 쳐 들어가 성주 공준을 성 밑에서 격파하였다⁵⁶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격파를 당한 존재가 갑자기 일리산 전투에서 대상의 진위로 군진의 선두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⁵⁷ 물론 성주 공준이 태조에게 패배한 이후 왕건에게 귀부하고, 이후 공준의 협조 속에서 왕건은 932년 11월 즈음에 일모산성 공략에 성공하며 유리한 전선을 갖추게 되자 934년 친히 운주를 친정(親征)하였다는 다른 이설도 있다. 이것이 제2차 운주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자, 웅진 이복의 30여 성이 고려로 투항하였다.⁵⁸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태조 왕건에 패배한 공준이 왕건에 귀부하고 이후 일시적으로 운주가 후백제의 영토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준은 왕건의 편에 서서 제2차 운주전투에서 공을 세웠다는 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에 대해서는 인물의 정확성 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에, 손공훈과 동일시 여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공준과 손공훈과의 관련성은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다 확대 해석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손공훈이 밀양의 성황신으로 추앙된 것은 어림잡아 무인정권 초반기, 즉 명종에서 신종대에 이르는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의 어느 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빈발하던 혼란기를 맞아 고을 수호자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던 토착 유력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밀양의 토호인 박경순 등이 원종 11년(1270)에 일어난 삼별초군 반란에 호응하면서 이듬해인 원종 12년(1271)에 밀양지방이 농민 봉기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55 김명진, 앞의 논문, 175~176쪽.

56 『고려사』 권1, 세가 1 태조 1.

57 천혜숙, 앞의 논문, 94쪽.

58 김명진, 앞의 논문, 191~206쪽.

농민봉기는 바로 안정되었으나 지역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밀양지역이 고려왕조에 기여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손공훈을 밀양의 성황신으로 추존한 것을 계기⁵⁹로 지역 수호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손공훈을 기반으로 하여 손씨 가문은 밀양지역에서는 가장 세력을 떨치는 토호 호족으로⁶⁰ 성장하였으며, 이후 조선시대에 후손들이 중앙에 진출하여 대대로 벼슬이 혁혁해지면서⁶¹ 가문의 위세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역으로 손공훈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개국공신으로서의 명성보다는 후손들이 중앙에 진출하게 되면서부터일 가능성이 높다. 후손들 중 정 삼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이들의 묘지명에는 밀양 손씨의 시조인 손순과 중조에 해당하는 손공훈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밀양 손씨 문중에서 직접 기록한 문집 자료에 의하면, 성황사에서는 춘추에 관에 의해 향사를 봉행해 왔었으나 1894년 향사 폐지 이후 후손들이 자체적으로 제사를 지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1939년 후손들에 의해 성황사가 중수(重修)되면서 외관을 목조에서 석조로 변경하고 또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머무를 춘복재(春福齋)를 건립한⁶² 내력을 지닌다.

59 변동명, 앞의 논문(2006), 38~47쪽.

60 변동명, 앞의 논문(2006), 19~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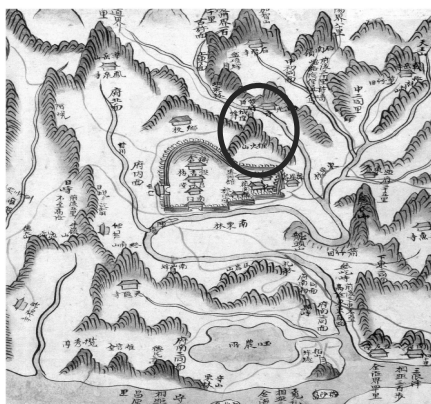
61 『다산시문집』 권16 「묘지명」; 『암서집』 권29 「묘갈명」; 『사미헌집』 권9 「묘갈명」 '검암손공묘갈명'. 정약용이 쓴 손기양(孫起陽)의 묘지명에서 발췌한 내용임(『다산시문집』 권16 「묘지명」). 그런데 손씨 가문의 시조인 순에 대해 묘지명마다 약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조공섭이 쓴 손석모(孫錫謨)의 묘지명에 의하면, 손순은 진한 육부의 대인이고 효행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암서집』 권29 「묘갈명」). 정약용의 묘지명에서 홍덕왕과 손순과의 관련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신라 3대왕인 유리이사금(재위: 24~57)과 42대 홍덕왕(재위: 826~836)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 장복추가 쓴 손전(孫佺)의 묘지명에 손순이 신라 월성군으로 기록되어 있다(『사미헌집』 권9 「묘갈명」 '검암손공묘갈명').

62 밀양문화원, 앞의 책, 34~37쪽.

2. 손공훈 성황의 지역 내 위상

조선시대 밀양의 읍지에 의하면, “추화산성은 부에서 동쪽으로 5리쯤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그 위에 손장군 손공훈의 묘가 있다”⁶³라는 내용이 있다. 추화산 동쪽에 위치한 손공훈의 사당은 곧 성황사를 말한다. 이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제작된 「여지도 밀양부」, 「해동지도 밀양부」, 「지승밀양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화산 및 그 정상에 ‘성황봉대(城隍烽臺)’ 혹은 ‘성황봉(城隍烽)’이라 표기되어 있다. ‘성황봉대’는 성황과 봉대를 한꺼번에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성황봉’은 ‘봉(烽)’이란 글자 자체에 ‘봉화(烽火)’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 ‘대(臺)’를 생략한 표기로 짐작된다. 성황사와 봉수대를 함께 표기한 이유는 성황사 바로 옆에 봉화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고려시대 추존된 성황신은 모두 지역의 방어를 위한 수호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성황이란 뜻 자체가 성을 방어해준다는



도1-해동지도 밀양부(1750년대 초)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도2-추화산과 城隍 烽
좌측의 고지도 확대한 모습

63 『동강유집』 권16 「별록」 '밀양지'.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성황신이 되었으며, 또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황신앙이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쟁 전에는 전투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성황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는 성황신의 도움 때문 이라 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서 성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성황사는 성 근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성황당이 있는 성 이름을 성황석성이라 부르기도 하였다.⁶⁴ 밀양의 성황사가 위치했던 추화산을 추화산성이라 불렀던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에 들어 성황이 위치했던 산에 봉수대를 세웠는데, 이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경상도 개령현·창원도호부·영천군·평안도의 안주 등, 이 4곳에 봉화를 올리는 곳으로서의 성황당이 있었다⁶⁵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황신을 모시는 성황사는 산성 근처에 있어 성이나 봉수의 명칭이 되기도 했다.⁶⁶ 고려와 조선시대 성황사 중 산 정상에 위치한 사례로는 황해도 해주의 남산, 경북 현풍의 비슬산, 전북 전주의 기린봉,



도3-여지도 밀양부(17세기 중반)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도4-추화산과 城隍 烽
좌측의 고지도 확대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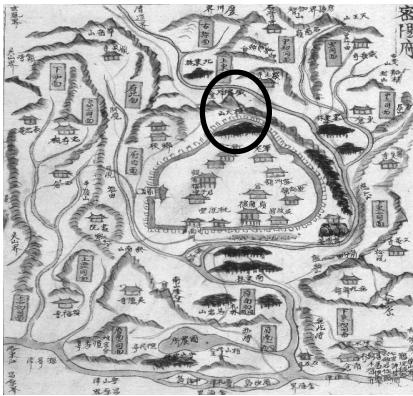
64 김갑동, 앞의 논문, 7~8쪽.

65 『세종실록지리지』 해당 군·현조.

66 김갑동, 앞의 논문, 8~9쪽.

경남 밀양의 추화산 등을 들 수 있다. 해주의 남산은 바다에 인접해 있으며 동서남북에 각각 대왕대비를 비롯한 신위를 봉안해 두었다. 경북 현풍의 비슬산에는 정성대왕신을, 전주의 기린봉에는 법황을 모셨었다. 그런데 이들 사례에 성황사와 봉수대를 나란히 배치해 놓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와 달리, 밀양의 추화산은 봉수를 올리는 곳이라는 점은 생략되었지만 추화산성의 봉수 또한 성황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세종실록지리지』에 4곳⁶⁷과 유사한 사례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산신과 성황신은 흔히 지역사회의 수호신이자 상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산 정상에 건립된 성황사는 산신과의 연계성 속에 설명되기도 한다.⁶⁸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처음 중국에서 성황이 유입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성황은 전쟁과 관련된 신으로서 민간신앙과는



도5- 지승밀양부(18세기 후반 이후)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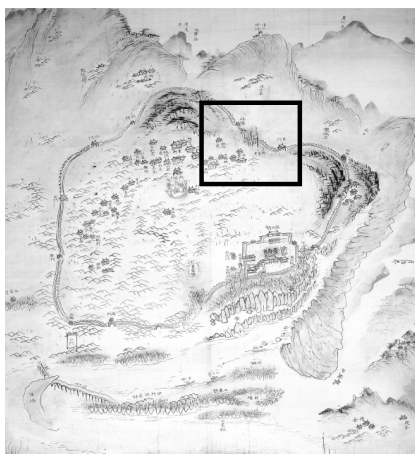
도6- 추화산과 城障 烽臺
좌측의 고지도 확대한 모습

67 『세종실록지리지』 해당 군·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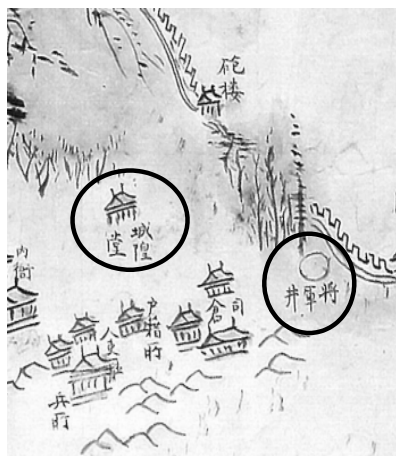
68 변동명, 앞의 논문(2020), 109~147쪽.

별개였으며 또한 산신과도 무관한 존재였다.⁶⁹ 태종 12년(1412) 의정부에 신불(神佛)의 일을 의논하게 하는 과정에서,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穡)이 “성황이 산에 있으나 성황제라 칭한 것은 산천제와 비슷하지만 같은 것이 아닌 것 같으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고금(古今)을 참조하여 시행케 하소서”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2월(을사))라는 내용에서⁷⁰, 조선 초기에 성황제와 산신제는 엄밀히 다른 의례로 구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종대인 1485년(성종 16)에 “향축을 내리는 악독과 산천에 폐백이 있고 성황도 산신의 한 유형인데 별제에는 폐백이 없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⁷¹는 내용에서, 조선초기와 다르게 성황은 산신의 일종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중기에는 성황과 산신을 혼동하여⁷² 동일시하



도7- 밀양고지도(19세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도8-좌측의 고지도를 확대한 모습

69 김갑동, 앞의 논문, 9~10쪽.

70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2월(을사).

71 『성종실록』 권174, 성종 16년 1월 5일(무자).

72 김갑동, 앞의 논문, 11~12쪽.

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황의 민간신앙화가 조선시대에 민중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던 것과 달리⁷³, 산신과 성황의 동일시는 조선전기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지역의 유력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결속을 추구하는 등 그 존재를 드러내고 나아가 그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자 내세운 것이 곧 산신이고 성황신⁷⁴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손금훈 또한 산신과 동일시되며 민간에서 신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밀양지역에서는 손금훈의 성황사 외에 성 안에 또 다른 성황당이 존재하였다. 조선시대 밀양읍지에 의하면, “밀양의 고적으로 이궁대(離宮臺), 추화산성(推化山城), 장군정(將軍井), 장군석(將軍石), 경락암(經絡巖), 마전암(馬轉巖), 정전사(征戰寺)가 있다”⁷⁵라는 내용이 있다. 이 중 장군석은 손금훈 설화가 전해지는 바위이다. 그런데 밀양의 고지도에 장군석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장군정(將軍井)이라 불리는 우물이 표기되어 있는 사례를 19세기 <밀양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우물은 김석(金碩)장군이 뿔다고 알려져 있으며, 물이 맑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큰 기쁨에도 마르지 않는데, 그 깊이는 10여 길⁷⁶로 알려져 있다. 밀양지역에서 손금훈 장군석과 함께 김석장군의 우물 또한 신비한 상징물로 알려져 있는데, 고지도에 우물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우물신앙이 존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우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 성황당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성 안에 위치한 성황당은 손금훈 장군과는 무관하다. 이 성황당은 장군우물신앙과 관련된 김석장군과 관련된 종교 성소라 할 수

73 『국조인물고』 권45, 박세무조; 『동국여지승람』 권32, 고성현 사묘조; 『동국여지승람』 권27, 현풍현 사묘조; 『동강유집』 권16 「별록」 ‘밀양지’.

74 변동명, 앞의 논문(2020), 114~117쪽.

75 『동강유집』 권16 「별록」 ‘밀양지’.

76 『동강유집』 권16 「별록」 ‘밀양지’.

있다. 밀양지역에서 두 곳의 성황이 존재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손궁훈은 봉수대로서 기능하며, 김석은 우물신앙과 연계하여 민간신앙화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에서 성황은 곧 성지(城池)로서 외부에 의한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한 인공적인 방어시설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중국의 성황신앙은 자기 고을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방어시설에 신격을 부여하여 수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비롯되었다.⁷⁷ 즉 방어시설에 주관하는 신이 깃들여 고을을 수호해 준다는 믿음이 성황신을 신앙⁷⁸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도시안의 해자와 같은 인공시설인 중국의 성황과 산 정상에 건물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의 성황은 다르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위난 시 성황의 직능과 봉수대가 갖는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처음 중국에서 성황이 유입될 때 그 직능 중 전쟁과 관련된 신으로서 유입된 점과 지역 수호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봉화는 위난 속에서만 피우는 것으로서 곧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관련된다. 성황신을 산꼭대기에 건립한 것은 산신으로서의 직능을 겸함과 동시에 이러한 위난 극복을 위한 수호신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라는 데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황사와 봉수대를 나란히 배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77 김갑동, 앞의 논문, 3~4쪽.

78 변동명, 앞의 논문(2020), 112쪽.

Ⅲ. 손공훈 성황신앙이 밀양지역 종교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

손공훈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의 인물이지만 그와 관련된 일부 상징물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해당 상징물들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손공훈 성황신앙이 타종교에 미친 영향이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투영된 점을 중심으로 그 문화적 영향력을 살펴본다.

1. 지역 민속종교에 미친 영향

손공훈에 대한 상징물은 성황사와 장군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추화산에 소재하였던 성황사 건물은 사라지고 없으나 인근에 위치하였던 봉수대는 여전히 남아있다.⁷⁹ 성황사에 봉안되었던 손공훈의 목조상은 현재 밀양시립박물관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다. 밀양시립박물관 전시실에 목조상이 전시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조각상은 모사본이다. 장군석 또한 성황사 인근에 존재하였으나 운문사 주변으로 옮겨져, 현재는 밀양이 아닌 청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장군석은 손공훈 장군이 활을 쏘았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⁸⁰

밀양지역에서는 위난 시 손장군의 출몰(出沒)과 음조관련 설화가 회자되고 있다. 손장군의 활약은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과 관련된 설화를 통해 알 수 있다.

79 2020년 조사 당시 봉수대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수대 옆에 위치하였다고 알려진 성황사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2020년 8월 5일 현지조사).

80 『동강유집』 권16 「별록」 '밀양지'.

“우리 조선조에 들어 임진년 왜적들의 병란에 적이 밀양 경계를 침범하자, 홀연 한가닥 신병이 추화산 봉우리에서 응위하여 내려오는데, 구름 안개 가운데 한 대장이 긴 칼을 들고 번쩍번쩍 휘두르며 적을 무수히 죽이니, 적이 크게 놀라 넋죽 엎드려 절하고는 도망쳤다”

“병자년에 이르러 남한산성의 경보가 있을 적에 부사 이필달(李必達)이 밀양 부의 군사를 이끌고 쌍령(雙嶺) 전투에 달려가다가 충주 달천에 이르러 자는데, 꿈에 웅장한 한 대장부가 스스로 손장군이라 하면서 필달에게 고하기를 “이번 걸음은 반드시 이롭지 못하리라, 주장이 재목이 아니니 우리나라에 복이 없다. 나 또한 음으로 도울 곳이 없으나, 본부의 군사는 그래도 구호하여 함몰되게 하지 않으리라”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필달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그 날 밤 군인의 꿈이 모두 필달이 꾸 것과는 부합하였다. 과연 쌍령전투에서는 남쪽으로 온 근왕 군사는 거의 다 패망하였고, 유독 필달이 거느린 군사만 모두 살아 돌아와서 각각 희생과 술을 진설하고 제사하여 보답하였다.⁸¹

병자호란 당시 전투에 동원된 밀양의 사졸들이 손공훈의 도움으로 대부분 생환하였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⁸² 또한 앞서 설명한, 성황봉화의 존재는 곧 위난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는 추화산성에 그 터만이 남아있다. 손공훈을 위한 제사는 한 때 추화산성 봉화대 옆에 마련된 곳에서 지냈으나, 현재는 봄과 가을에 손공훈의 무덤 앞에서 향사를 지내고 있다. 손공훈의 성황사는 조선시대에는 공적 성황제⁸³의 하나로 거행되고 유지되었다. 19세기 말기에 공적 성황제가 폐지된 이후, 성황제는 밀양 손씨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81 밀양문화원, 앞의 책(2008), 959쪽; 한태문 외, 『밀양설화집』 권1(밀양문화회, 2009), 116쪽.

82 『여지도서』 경상도 밀양도호부.

83 최종석, 앞의 논문(2009), 207~251쪽.

한편, 성황제는 무격의 주재로 거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속에서 성황은 마을 수호신으로서 신앙되어, 정기적으로 무격(巫覡)의 주재로 의례를 지낸다. 성황사에는 향사 외에도 무격 주재 의례도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사절요』에는 성황사와 무격과 관련된 기록이 전해진다. 경주의 적도 도령 이비부자(利備父子)가 성황사에 몰래 기도하러 오자, 격(覡)이 이들을 속여 병마사 정언진에게 넘긴⁸⁴ 사례와 “등주의 성황신이 무(巫)에게 자주 내려 기이하게 화복을 잘 맞추었다”⁸⁵는 사례 등을 통해 성황사 소속 무격이 존재하였고 또한 이들을 통해 기원하는 바를 성황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도나 제를 지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주의 성황사에서 이비부자를 정언진에게 넘긴 격은 이곳에 소속되어 찾는 이들이 기도를 하계꿈 도와주고 강신을 통한 화복을 점치는 예언 의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의 예언은 무속의례 도중 무가 신도들에게 내리는 ‘공수’라 불리는 현상으로, 그렇다면 이 무도 등주 성황사에서 무의를 행하면서 예언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⁶

민간에서 성황은 다양하게 신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괴산지역 사람들이 성황신을 받들고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자, 지역의 감찰사인 박세무가 성황신과 관련된 깃대와 파란 구슬을 빼앗아 모두 불태워 버린⁸⁷ 일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고성지역에서는 매년 5월 초하루부터 5일까지 즉 단오에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눈 다음 성황사의 신상을 메고 푸른 깃발을 들고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 때 사람들은 술과 찬으로써 제사를 지내고 광대들이 모여서 놀이판을 베풀었다.⁸⁸ 성황 신앙에 대한

84 『고려사절요』 권40 「신종정효대왕」.

85 『고려사절요』 권13 「명종광효대왕」 2.

86 박호원, 앞의 논문, 92~94쪽.

87 『국조인물고』 권45, 박세무조.

88 『동국여지승람』 권 32, 고성현 사묘조.

또 다른 사례로 이익의 『성호사설』에 “성황에게 제사하여 불행하게 죽은 자들을 달래고자 한 것이라”⁸⁹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선후기에 이미 성황신앙이 민간에서 기복신앙화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⁹⁰

성황의 민간신앙화는 밀양의 손공훈 성황사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창사집』에 “고려시대 공훈이 공을 세워 광리군에 봉해졌는데, 밀양사람들이 추화산에 제사 지내러 온다”⁹¹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손공훈은 광악(光岳)의 기운이 모여 출현한 신령으로서 영험한 자취를 종종 드러냈다”⁹²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동강유집』에는 “추화산에 손공훈의 사당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빈다”⁹³라는 내용이 있다. 이 때 무격을 대동하여 기복발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조선시대 밀양지역에서 손공훈의 신격화는 성황사를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⁹⁴

밀양지역에서 손공훈의 신격화는 질병치료 기원⁹⁵과 전란에 음조로 나타나 밀양에 출몰한 적을 물리치거나 혹은 이 지역 출신 군인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고 돌아온 것에 일조한⁹⁶ 설화 등의 사례를 통해 이미 밀양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널리 신앙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통해 보건대 밀양지

89 『성호사설』 「성황묘조」.

90 김갑동, 앞의 논문, 4쪽.

91 『창사집』 권5 「행장」.

92 밀양문화원, 앞의 책(2008), 959쪽.

93 『동강유집』 권16 「별록」 ‘밀양지’.

94 밀양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김성수와와의 면담에 의하면, 손장군 일화는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나 현재 손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사례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를 일제강점기 추화산에 있던 성황사를 폐하면서 손장군 신앙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밀양지역 무속인 김성수와 면담, 2021년 12월 2일).

95 『동강유집』 권16 「별록」 ‘밀양지’.

96 『여지도서』 경상도 밀양도호부.

역에서 손공훈의 직능 중의 하나가 치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직능을 지닌 사례로 경북 현풍 비슬산에 정성대왕신을 모신 성황사를 들 수 있다. 이 성황사 또한 “전염병이 돌 때 기도하면 바로 효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제사에 사용한 종이와 베는 활인서로 보냈으며, 질병 외에 장마나 가뭄 등과 같은 천재지변 때에도 기도를 하였다”고 한다.⁹⁷

무속에서 영웅으로 추앙되는 인물이 뒷날 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업적이 민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며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일으켜야 한다.⁹⁸ 그러한 맥락에서 손공훈은 이미 밀양의 공인된 성황신이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기원 목적이 있을 때 그의 성황사를 찾았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무속의 신으로 추앙받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밀양지역 풍속이 무격을 좋아했다는 내용에서⁹⁹, 손장군신이라 하여 밀양지역 무속신의 하나로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시대에 건립된 성황사는 대체로 산 정상에 존재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우리의 산신과 연계¹⁰⁰해서 신앙되었을 가능성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산신과 성황의 동일시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손공훈은 곧 산신이면서 지역 수호신인 성황으로 이미 자리매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손공훈의 지역 내 입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상징물로는 성황사 내부에 봉안되었던 손공훈의 목상을 꼽을 수 있다.¹⁰¹ 현재 경남 문화재자료 213호

97 『동국여지승람』 권27, 현풍현 사묘조.

98 조홍윤, 『한국의 무』(정음사, 1983), 104~105쪽.

99 『동강유집』 권16 「밀양지」 “大抵力穡織齋而喜巫覡健訟”.

100 변동명, 앞의 논문(2020), 113~139쪽.

101 밀양시립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손공훈 목상은 2013~2014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한국의 도교문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도교신과 관련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손공훈의 신상이 성황신의 범주

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문화재로 지정된 손공훈 목상은 현재 밀양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¹⁰² 원래 손공훈의 신상은 목상이 아니라, 소상(塑像)이었다. 손명래(孫命來, 1664~1722) 사후 1874년에 간행된 시문집인 『창사집』에 “중조인 손공훈의 소상이 밀양의 추화산에 있어 당시까지 제사를 드린다”¹⁰³는 내용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본 시문집의 집필당시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는 소상이 성황신사안에 세워져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 신상은 돌을 깎아 만든 석상과 흙으로 빚은 소상¹⁰⁴ 혹은 나무를 깎아 만든 목우(木偶)¹⁰⁵ 등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손공훈의 소상이 언제 목상으로 바뀌었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향사 폐지 이후 밀양손씨 가문에서 성황사를 중수하면서 교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리라 본다.¹⁰⁶

2. 지역 불교에 미친 영향

경남 청도군에 위치한 운문사¹⁰⁷에는 손공훈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고

안에서 전시되기도 하였다(12월 10일(화)부터 2014년 3월 2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3년 마지막 기획특별전 “한국의 도교 문화: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개최(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www.museum.go.kr)하였다).

102 밀양 현지조사(2020년 8월 4~5일).

103 『창사집』 「창사집세계도」.

104 李能和(著)·李在昆(譯), 『朝鮮巫俗考』(東文選, 1991), 257쪽, 279쪽, 280쪽.

105 『동국여지지』 권3 「충청도」.

106 조선 시대 일부 지역 성황사는 지역 관리에 의해 소상(塑像)을 헌 사례도 있다. 전주의 성황사는 관찰사 이언호(李彦浩)가 소상을 헐고 위판으로 대신(『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라도 전주부 사묘조)하였다. 당시 성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을 당시에도 신상을 유지하고 또한 오히려 2m가 넘는 신상을 제작할 정도라면 손공훈 성황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기반이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07 신라 고승 보양(寶養)이 세운 절로, 처음 창설 당시 이름은 작암(鵲岬)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경상도」 '청도군'.



도9- 손공훈 진영(운문사 조영전)

있다. 운문사는 557년(진흥왕 18)에 신승이 금수동에 들어와 작은 암자를 짓고 수도하여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창건한 오갑사(五岬寺)에서 시작되었다. 오갑사 중 대작갑사(大鵲岬寺)가 오늘의 운문사며, 이후 원광이 600년(진평왕 22)에 중창했다. 이후 태조 13년(930) 보양선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중창되었다.¹⁰⁸ 이 보양선사가 태조와 관련된 인물로서 삼국평정을 이루려는 태조 왕건에게 적을 물리칠 계책을 알려주었다. 고려 태조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보양선사의 운문사 중창을 후원하고 운문선사(雲門禪寺)라는 편액을 내렸다.¹⁰⁹

이후 운문사는 태조에 의해 비보사찰로 지정되었다. 운문사의 중창은 불법 수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면으로는 삼국요동의 현실에서 피적과 삼국평정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후삼국 시대의 세력판도에서 운문사의 위치는 군사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백제군 쪽 공략에서 볼 때 운문사는 경주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하였으므로 후삼국 전쟁 시 중요한 군사 또는 방어기지가 될 수 있었다. 운문사를 중심으로 한 삼국평정의 과업에 지역 호족인 손공훈 장군도 가담하였다.¹¹⁰ 손공훈은 보양국사가 밀양의 봉성사에서 운문사로 옮긴 뒤, 추화산성에 거점을 두고 이곳에

108 『慶尙道淸道郡東虎踞山雲門寺寺蹟』[彩軒, 『慶尙道淸道郡東虎踞山雲門寺寺蹟』(1718년) (한국학문헌연구소편, 『雲門寺誌』(아세아문화사, 1983), 7~8쪽(김정희, 「조선 후기 운문사의 불사와 불화」, 『강좌미술사』 50집, 2018, 110쪽에서 채인용); 박승훈, 「고려시대 운문사 창건연기의 변천과 역사적 의의」, 『韓國史學史學報』 30(2014), 9~43쪽).

109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보양리목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6 「경상도」 '청도군'.

110 천혜숙, 앞의 논문, 92~94쪽.

주둔하며 수십 차례의 비적의 침입을 막았다.¹¹¹

운문사에는 진영을 별도로 봉안해 놓는 공간이 존재한다. 해당 공간은 조영전이라 불리며,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고 행사를 위해서만 문을 열어둔다.¹¹² 조영전에는 원광국사진영을 비롯한 국사 11인의 진영 11점이 봉안되어 있다. 진영은 대부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³ 이 조영전에는 국사의 진영 외에 손공훈의 진영 또한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는 태조를 도와 사찰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내력과 연관된다. 그러한 내력으로 인해 손공훈은 운문사의 신장(神將)으로 추존되고 있다.¹¹⁴

운문사에 그의 진영이 봉안된 시기는 앞서 설명한 국사들의 진영과 같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로 추정된다. 운문사에서는 진영 봉안 이후 정기적으로 매년 음력 9월 9일 중구절에 11명의 국사와 2명의 장군을 포함한 13명을 위한 재(齋)를 지내오고 있다. 이를 다례의식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¹¹⁵ 이 의식이 진영 봉안과 함께

111 『손씨세덕록』[전국손씨화수회, 앞의 책, 53~55쪽(천혜숙, 앞의 논문, 94쪽에서 재인용)].

112 평소에도 이 조영전은 열어 두지 않으며, 미리 방문 연락을 주거나 혹은 중앙절 다비의식에만 문을 연다. 해당 공간은 현재 재정비를 위해 여러 점의 진영 외에도 여러 점의 불화와 불구 등이 이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2020년 8월 4일 운문사 현지조사).

113 김정희, 앞의 논문, 140~145쪽.

114 조영전에는 손장군과 함께 김무회 장군의 진영도 봉안되어 있다. 운문사 사찰의 범수스님은 이 두 장군을 조영당에 모시고 제향하는 이유를 “손장군이나 김장군 두 분이 운문사에 보영국사와 같이 지켜주었고 도움을 주어, 중구절에 보영국사랑 창건주와 함께 13세분을 모시고 齋를 드리고 있어요”라고 한다[2009년 7월 25일 보영국사와의 면담자료 재인용(천혜숙, 앞의 논문, 95쪽에서 재인용)].

115 이 의식에는 손공훈과 김무회 장군 두 집안의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다(운문사 서기 스님과의 면담자료, 2020년 8월 4일). 과거 밀양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은 추석 대신 중구절을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는 추수가 늦어진 탓에 추석에는 조상에게 감사제를 지낼 수 없었던 환경적인 배경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구절의 다례의식은 조상제례의 연장선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행해졌는지 아니면 운문사의 신장으로 추존된 이후부터인지 그 시작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진영 봉안 이전에도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남지역에서는 조선 후기 국가에서 부조묘(不祧廟)를 인정해준 경우 중구절에 제사를 지냈던 것과¹¹⁶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다례의식은 신장으로 추존하고 이들을 위한 제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손공훈은 도교와 유교적 성격을 띠는 성황신임과 동시에 불교의 수호신으로서 인식된다. 그러한 점에서 손공훈은 밀양지역의 다양한 종교에 문화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문에서는 고려시대 태조를 도운 건성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삼한벽상개국공신 광리군에 추봉된 손공훈이 밀양지역의 성황신으로 추존된 역사적 배경과 지역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손공훈은 지역의 토착세력가로서 태조를 도와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고려 초의 호족을 검토할 때 스치듯 언급되는 정도였으며 또한 중앙 정치에 진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사류에도 거의 기록을 남기지

116 조선중엽에 이르러 사대부들은 1년 4회의 시제가 부담되어 이를 춘추 2회로 줄여 봄에는 삼짇날에 그리고 가을에는 중앙절에 지내는 자가 많아졌다(『洌陽歲時記』 ‘三月三日’). 조선 중엽 이후 경상도 지역에서는 중앙절에 불천위제사를 지내거나 묘제를 지냈다(2000년대에 들어서도 경상북도 안동지방 등에서는 불천위 사당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면 이후 산소에서 묘제는 행하지 않는 집안이 많았다(정승모, 「歲時關聯 記錄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歲時風俗의 變化」, 『역사민속학』 13집(2001), 56~63쪽)는 사례들로 미루어 이 지역에서 불천위를 모시는 집안에서, 중앙절에 사찰에서 다례의식으로 묘제를 대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못하였다. 그러나 손공훈 성황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그 기록이 사료와 고지도 등에 남아있다. 고지도에는 추화산의 ‘성황봉’·‘성황봉대’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추화산에 위치하였던 성황사에서는 19세기 말까지 춘추에 향사를 지냈으며, 성황사는 20세기까지 그곳에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적인 가치를 지닌다.

손공훈의 고려시대의 성황으로서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손공훈의 활약상과 성황으로 추존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았다. 사료에 손공훈의 활약상은 견성전투에 태조와 함께 하였다는 정도만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한 짧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개국공신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활약상은 작지 않았으리라 보았다. 당시 손공훈은 지역의 토착세력가로서 쌓은 경제적·인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태조는 그러한 기반을 지닌 지역 호족 손공훈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위상을 지닌 손공훈이 성황으로 추존된 배경을 지역적 필요성과 후손들의 지지기반과의 관련성에서 논의해 보았다. 밀양에서는 13세기 일어난 농민봉기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왕조에 기여한 손공훈을 지역의 수호신으로 추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또한 밀양 손씨 후손들은 이전부터 축적해온 토지와 그에 소속된 농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 그들의 위상과 존재 지속을 위해 이미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손공훈을 성황으로 추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리라 본다. 여기에 더 나아가 밀양 손씨는 비교적 사료에 관련 자료가 다수 남아있는 공준을 손공훈과 동일인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준을 다른 인물로도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고지도에 의하면, 추화산성에 성황봉대가 표기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성황과 봉수대가 함께 배치되는 사례를 네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개 위난 시에 지역을 보호해주는 성황의 직능과 재난 시에만 기능을 하는 봉수와 그 성격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정상에 봉수를 설치해야 하는 점과 맞아 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와 추화산성의 성황봉대는 유사한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산 정상에 건립된 성황봉대로 인해 산신과 성황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이 둘의 관계가 동일시되어 민간신앙 속으로 수용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추화산성의 손장군 성황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수호신으로서 손공훈의 위상은 조선시대 밀양과 인근지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손장군이 나타나 구해주었다는 음조설과 밀양지역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도 손장군 덕분에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손공훈은 전쟁과 관련된 신으로 추존되어, 지역에서는 위난 시 나타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공훈의 성황사는 질병 치유를 위해 사람들이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다른 지역 성황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 때 무격을 함께 대동해서 기복발원을 기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선시대 다른 지역 성황사에서는 무격이 의례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밀양의 성황사도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읍지에 밀양의 풍속이 무속을 좋아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정해 본다. 타종교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은 밀양 인근에 위치한 청도의 운문사에 봉안된 그의 진영과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다례의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운문사는 태조 왕건의 비보사찰로서 편액과 중수를 위한 기금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 사찰에는 태조를 도와 운문사를 비호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손공훈의 진영이 조영전에 봉안되어 있다. 운문사에서는 조영전에 봉안된 이들과

함께 다례의식을 매년 중구절에 행하고 있다. 조영전의 진영은 대략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봉안되었는데, 다례의식은 이 시기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다례의식은 불교 승려가 아닌 인물을 신장으로 추존하고 이들을 위한 제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손공훈은 도교와 유교적 성격을 띠는 성황신임과 동시에 불교 사찰의 수호신으로서 인식된다. 그러한 점에서 손공훈은 밀양 지역의 다양한 종교에 문화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동강유집』, 『다산시문집』, 『성호전집』, 『창사집』, 『국조인물고』, 『암서집』, 『사미헌집』, 『동국여지지』, 『열양세시기』. 『密陽』.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2017.

『密陽樓亭錄』. 밀양: 密陽樓亭錄刊行委員會, 1984.

밀양지편찬위원회, 『密陽誌』. 밀양: 密陽文化院, 1987.

밀양문화원, 『국역 밀양누정록』. 부산: 신지서원, 2008.

손영경, 『밀성손씨죽원파세보』. 대구: 대보사, 2001.

한태문 외, 『밀양설화집』 권1. 밀양: 밀양문학회, 2009.

2. 단행본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울: 서경문화사. 2010.

마서전(저), 윤천근(역), 『중국의 삼백신』. 서울: 민속원, 2013.

변동명, 『한국 전통시기의 산신·성황신과 지역사회』.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李能和(著)·李在昆(譯), 『朝鮮巫俗考』. 서울: 東文選, 1991.

일연(저), 김원중(역), 『삼국유사』. 서울: 민음사, 2008.

조흥윤, 『한국의 무』. 서울: 정음사, 19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추진사업위원회, 『고문서집성: 밀양 밀성박씨덕남서원 편』 권76. 성남: 2004.

한국종교사연구회, 『성황당과 성황제』. 서울: 민속원, 1998

G. 프루너(저), 조흥윤(역), 『중국의 신령』. 서울: 정음사, 1984.

3. 논문

곽승훈, 「고려시대 운문사 창건연기의 변천과 역사적 의의」. 『韓國史學史學報』 30, 2014, 9~43쪽.

김갑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 1991, 1~24쪽.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공준의 역할」. 『군사』 96, 국방부 군사편찬

- 연구소, 2015, 173~208쪽.
- 김정희, 「조선후기 운문사의 佛事와 불화」. 『강좌미술사』 50, 2018, 109~149쪽.
- 김철웅, 「조선후기의 성황제」. 『사학지』 35, 2002, 39~54쪽.
- 변동명, 「城隍神 金忍訓·孫兢訓과 梁山·密陽」. 『한국사학보』 22, 2006, 9~58쪽.
- _____, 「한국 전통시기의 산악신앙·성황신앙과 지역사회: 역사상 인물의 산신·성황신 추앙을 중심으로」. 『호남학』 67집, 2020, 109~147쪽.
- 박호원,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 2집, 1995, 175~212쪽.
- 서영대, 「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 비교」. 『중국사연구』 12, 2001, 173~225쪽.
- 유영숙,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질서변동과 城隍祠」. 『江原文化史研究』 7, 2002, 67~136쪽.
- 尹熙勉, 「新羅下代の 城主·將軍: 眞寶城主 洪術과 載巖城將軍 善弼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 39집, 1982, 53~71쪽.
- 이경엽, 「순천의 성황신앙, 산신신앙과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남도민속연구』 6, 2001, 165~193쪽.
- 이기태, 「성황사와 지역사회 이념의 통합: 조선 중·후기 순창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8집, 1999, 72~98쪽.
- 정승모,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촌사회의 변동」. 『태동고전연구』 7, 1991, 3~28쪽.
- 천혜숙, 「청도지역의 건원 전승과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 『실천민속학연구』 33집(2019), 69~117쪽.
- 최종석, 「조선후기 城隍祠 입지를 둘러싼 양상과 그 배경: 高麗 이래 질서와 '時王之制' 사이의 길항의 관점에서」. 『韓國史研究』 143, 2008, 145~200쪽.
- _____, 「여말선초 명(明)의 예제(禮制)와 지방 성황제(城隍祭) 재편」. 『역사와 현실』 72, 2009, 207~251쪽.
- 那波利貞, 「支那に於ける都市の守護神に就きて」(上), 『支那學』 第7卷 第3號(1934), pp. 29~82.

David Johnson, "The City-God Cult of T'ang and Sung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5-2, Harvard-Yenching Institute, 1985, pp. 363~457.

4. 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https://www.museum.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밀양지역에서 손금훈(孫兢訓)이 성황으로 추존된 배경과 그 위상, 그리고 지역 종교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황신앙(城隍信仰)은 신라 말과 고려 초 사이에 중국에서 수용되어, 고려시대에 국가와 지방 토호세력에 의해 추앙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었다.

밀양지역에서는 손금훈을 추앙한 성황이 고려부터 조선까지 지역공동체를 위한 수호신으로 인정받아왔다. 손금훈은 940년(태조23)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면서 고려개국공신의 그림을 그린 공신당(功臣堂)에 묘사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의 하나이다. 손금훈은 고려시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광리군(廣理君)에 추봉되었는데, 광리는 밀양의 옛 이름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려시대 성황은 지역 토호세력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특징을 지닌다.

손금훈성황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향력이 조선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손장군이라 칭해지며 지역공동체 수호신으로서 종교체험담과 지역 풍속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다. 전쟁에 참가한 지역병사들에게 음조(陰助) 신으로 나타난 점, 근심거리가 있는 지역민들이 성황사를 찾았다는 점, 지역풍속에 무격을 좋아했다는 점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손장군 성황이 타 종교에 미친 영향력 등은 조선후기 운문사에 그의 진영(眞影)이 봉안되어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의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태조 왕건과 연관되며 한국 전통사회에서 성황이 지역수호신으로 신앙되어, 무속의 신으로 수용된 사례가 일반적인 것에 반해 본 사례는 불교사찰의 수호신으로 추앙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투고일 2021. 9. 23.

심사일 2022. 1. 3.

게재 확정일 2022. 2. 10.

주제어(keyword) 밀양(Miryang), 손금훈(Son Geung-hoon), 조선시대(Joseon Dynasty), 성황신앙(Seonghwang Faith), 성황(Seonghwang-God), City God

Abstract

The Status and Cultural Influence on Religion of the
Seonghwang Faith in Miryang During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General Son Geung-hoon, Seonghwang-God.
Choi, J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Son Geung-hoon who became Seonghwang-God of Miryang in the Joseon Dynasty, his status, and cultural influence on regional religion.

The Seonghwang faith has been meaningful in strengthening the solidarity of local people and confirming their identity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e Seonghwang faith was accepted from China between the end of Silla and the early Goryeo Dynasty, and was revered by the powerful local families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maintain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entralized system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the Miryang area, Seonghwang, which honored Son Geung-hoon of Miryang Son Clan, has been recognized as a guardian deity for the local community from Goryeo to Joseon. Son Geung-hoon is one of the Samhanbyeoksagongsimeritorious retainers who depicted in the picture of Gongsindang. Son Geung-hoon was honored to Gwangni-gun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 during the Goryeo Dynasty, and it is also noteworthy that Gwang-ri is the old name of Miryang. Seonghwang during the Goryeo Dynasty was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powerful local families. The same goes for Son Geung-hoon, such influence continued in Joseon, which is called General Son, and can be seen from religious experiences and records of local customs as a guardian deity of the local community. The basi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General Son appeared to local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the war as helper god, that local people with concerns visited Seonghwangsa Temple, and that they liked shamanism in local customs. It can be said that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Seonghwang was believed to be a local guardian deity and accepted as a shamanic god, whereas this case is revered as a guardian deity of Buddhist temples.